산업통상자원부	보 도 자 료	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	
보도 일시	2023. 2. 8.(수) 06:00 < 2.8.(수) 석간 >	배포 일시	2023. 2. 7.(화)
담당 부서	자유무역협정정책관 인도태평양통상기획팀	책임자	팀 장 장미화 (02-2100-1370)
		담당자	사무관 노정림 (02-2100-1376)

인태경제프레임워크(IPEF) 의제2-4 특별협상 참여

- 2차 협상에 앞서 공급망, 청정경제, 공정경제 등 3개 분야 회기 간 협상 -

- 향후 분야별 협상의 방향 설정 및 논의 가속화 계기 -

□ IPEF **특별협상**이 2.8(수)~11(토) 간 **인도 뉴델리**에서 **개최**된다.

* IPEF(Indo-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) :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

* 금번 협상은 모든 분야를 다루는 공식 협상이 아닌, 일부 분야(공급망/청정경제/공정경제)만 논의하는 바, 특별협상(Special Round of Negotiations)이라고 명명

○ 금번 특별협상은 공식 2차 협상(일정 상세 미정)에 앞서 진행되는 **회기간 협상**으로, **공급망, 청정경제, 공정경제 3개 분야**를 **중심**으로 **분야별 실무협상**과 함께 **수석대표회의**도 **진행**될 **예정**이다.

* IPEF 4개 분야 : ①무역, ②공급망, ③청정경제, ④공정경제

○ 우리 측은 **산업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**을 수석대표로, **산업통상자원부, 기획재정부, 외교부, 농림축산식품부, 고용노동부, 법무부, 해수부, 국세청** 등 관계부처 대표단이 참석한다.

< IPEF 특별 협상 개요 >

- **(일시/장소)** '23.2.8(수) ~ 11(토), 인도 뉴델리
- **(의제)** 공급망(필라2), 청정경제(필라3), 공정경제(필라4)
- **(참석자)** 한국, 미국, 일본, 호주, 뉴질랜드, 베트남, 브루나이, 인도네시아, 말레이시아, 필리핀, 싱가포르, 태국, 피지, 인도 등 **14개 참여국** 수석대표(차관/차관보급) 및 실무 협상단

※ IPEF 진행경과 : '22.5.23 출범, '22.9.9 4개 분야별 각료선언문 발표, '22.12.10-15(호주 브리즈번) 1차 협상 개최(4개 분야 모두 논의)

□ 금번 협상에서는 14개 참여국들 간 **인태지역 내 공급망 교란 방지 및 위기 해소**를 위한 **공동 대응방안 모색**, **청정에너지로의 전환**을 위한 **협력 강화**, **공정한 글로벌 통상 환경 구축**을 위한 **투명성 제고**에 **초점**을 두고 **분야별 협정문 협상**을 **진행**할 **예정**이다.

* (공급망) 위기대응 매커니즘 마련, 공급망 복원력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, 공급망 물류 원활화 등, (청정경제) 에너지 안보 및 전환, 우선부문 온실가스 감축, 지속가능한 토지·수자원·해양, 온실가스 제거 기술 협력, 청정경제 전환 인센티브 등, (공정경제) 조세 투명성 제고, 반부패·뇌물방지 국제기준 이행강화 등

○ 이를 통해 기존 통상협정에서 다루지 않은 새로운 분야인 **공급망, 청정경제, 공정경제 분야별 협상**을 **가속화** 할 수 있을 것으로 **기대**된다.

□ 산업부는 금번 협상에 대비, **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** 등과 **협의**를 통해 **협상 전략**을 **수립**해 온 만큼,

○ 우리 기업들의 **인태지역 진출**과 **수출 확대, 산업경쟁력 강화**에 **기여**할 수 있는 규정들이 협정문에 반영될 수 있도록 **적극적**으로 **협상**에 **참여**할 **예정**이다.

* 우리와 IPEF 참여 13개국 간 교역규모('21) : 4,984억불(우리 총 교역규모의 39.6%)

□ 한편,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"지난해 **IPEF 출범부터 1차 협상까지의 성과**를 **바탕**으로, **금년**에도 **건설적인 논의**를 통해 **빠른 시일 내 실질적인 성과**를 **도출**할 수 있기를 **기대**한다"고 하면서,

○ "금번 특별협상은 **공급망, 청정경제, 공정경제**와 관련하여 **그간 제기된 참여국들**의 **다양한 의견**을 **바탕**으로 향후 IPEF **분야별 협상**의 **방향**을 **설정**하는 **중요한 계기**가 될 것"이라고 언급하고,

○ 아울러, "**규범과 협력의 균형잡힌 접근**을 바탕으로 IPEF가 **인태지역 당면과제**를 **해소**하는 **구심점**이 될 수 있도록 **협상 진전**에 **기여**하면서도 **우리**의 **핵심이익**을 **확보**할 수 있도록 **노력**하겠다"고 강조하였다.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